



3331 독서법

지식생태학자 **유영만** 교수님의 **묘계질서(妙契疾書)** 노트

묘계(妙契)는 번득 떠오르는 깨달음이나 아이디어이고 질서(疾書)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즉각 메모하는 습관을 말한다. 묘계질서(妙契疾書) 노트는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움직인 문장을 메모하고 그 문장이나 저자의 생각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내 삶에 적용해볼 실천사항을 적어보는 노트다.

객관적 사실

3

Fact

1.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 세 문장

책을 읽으면서 인두처럼 폐부를 찌르고 전두엽을 자극했던 감동적이거나 기억할만한 문장으로 반드시 책에 나오는 문장이어야 됨

주관적 느낌

3

Feeling

2.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세 가지

해당 문장이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지, 나의 체험이나 기존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느낀 점은 무엇인지?

실천적 행동지침

3

Fighting

3.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에 적용해볼 실천 사항 세 가지

독서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데 있지 않고 읽으면서 메모하고 메모한 대로 실천하는 몸으로 하는 독서, 책에 나온대로 실천하는 독서가 뒤따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.

한 마디로 말하면

1

Finish

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

아무리 좋은 생각을 담은 책이라고 해도 읽고 난 다음 남는 게 없거나 너무 많은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면 시간과 더불어 내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.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. 복잡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단순화 연습은 사고력 연마에도 금상첨화다.



1.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 세 문장

객관적 사실 (Fact)

Fact

Fact

Fact

2.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세 가지

주관적 느낌 (Feeling)

Feeling

Feeling

Feeling

3. 책을 읽고 나서 내 삶에 적용해볼 실천 사항 세 가지

실천적 행동지침 (Fighting)

Fighting

Fighting

Fighting

4.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내용을 한 마디로 말하면?

오늘 읽은 책 (Today's Book)

Finish

“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.
행간에 머무르고 거주하는 것이다.”
- 발터 벤야민

Reading Book Log

책 제목, 저자, 페이지 등을 기록해 둡니다.